전호근 <장자, 그 신랄한 패러디의 세계>

1강 신랄한 패러디의 연금술사, 장자 소개

◆ 1교시 장자에 대하여

▲ 강의 소개 - 진행 중인 『장자』 번역

제가 강의한 지 참 오래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강좌가 시작이 되니까 긴장이 되네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만나 뵙게 되니까 늘 새로운 만남에는 설렘이 있기 마련이죠. 제가 강의를 언제부터 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91년도부터 했더라고요. 동양고전 강좌를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제가 본래 동양고전 강좌를 꼭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취향보다는 제 취향이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동양고전 중심으로 강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전공이 철학입니다만 철학개론이라든지 이런 대학 강좌 유형의 개론식의 강좌보다는 동양고전 강좌를 주로 담당하게 되었고 그게 결국엔 오늘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장자』도 번역하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장자』를 번역하기 시작한 것은 2002년도부터 번역을 했어요. 『장자』가 총 33편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섯 편을 남겨놓고 이제 전통문화연구회에서 『장자』가 제 은사님이신 안병주 선생님과 같이 번역을 시작해서 1권, 2권이 나왔고요, 3권은 원고가 넘어갔습니다. 원고가 넘어갔고 총 33편중에서 여섯 편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어 달 사이로 총 4권의 『장자』가 완간될 계획입니다.

일단 그 번역은 4권짜리 『장자』인데다가 기존의 모든 주석을, 모든 주석이라고 하면 곤란하죠. 아주 중요한 주석들을 망라해서 전공자들을 위한 번역서를 낸 거고요, 그리고 일반인 대상의 번역서라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강좌를 담당하면서 제 나름대로 일반인 대상, 대중서로서의 『장자』 번역서를 한 번 기획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강좌가 이제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텐데요, 『장자』 33편중에서 내편이 7편입니다. 그 7편 번역을 여러분들하고 다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를 해온 것은 『장자』의 첫 번째 편인 「소요유」편이죠. 「소요유」 편 전문을 다 번역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의 수준은 제 아들이 중 2학년입니다. 중학교 2학년생이 이해할 수 없는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기 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번역을 했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번역과는 완전히 다른 형

www.artnstudy.com

식의 번역이 됩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중국 고대 문헌은 대화체입니다. 공자 사후에 공자 제자들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머리 속에 기억해 두었다가 기록한 게 『논어』라는 책이죠. 물론 그래서 공자는 직접 『논어』를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뒤에 제자들이 모은 거니까요. 그 내용도 『논어』라는 게 말씀이라는 뜻인데 그 말씀은 전부 대화입니다. 『맹자』도 마찬가지죠. 『맹자』도 마찬가지고 『장자』도 근본적으로는 대화입니다.

▲ 전국시대 공맹의 위상

다만 **공자나 맹자는 직접 대화 상대가 있었고요 장자는 대화 상대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불우한 지식인을 꼽을 때 공맹을 늘 듭니다만 장자와는 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공자 같은 경우를 보죠. 비록 노나라에서 석 달 남짓 정도 벼슬을 하다가 권력자들에 의해서 밀려서 노나라를 쫓겨나다시피 떠나게 되죠. 비록 그렇습니다만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자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제후들**입니다. 제나라에 가면 누굴 만나냐 하면 제나라 경공을 만나요. 임금들과 직접 대화하는 처지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공자가 제나라 수도 임치에 왔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군주가 공자를 불러서 정치의 자문을 구합니다. 정치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위방지도, 위국지도,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묻거든요. 그러면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재절용이라. 정치란 것은 재물을 절약해서 백성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민생을 구제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도 노나라 귀족 계강자(季康子)가 실권자인데 공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백성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구체적인 정책을 물어요. 그럼 공자는 "당신이 도둑질을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도둑질을 할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그랬죠. 그렇게 한 이유는 공자가 실제로 실권은 없었지만 공자의 제자들, 예를 들어 자공 같은 사람들은 노나라 재상, 위나라 재상, 제나라 재상, 3국의 재상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자공이 한 번 움직이면 천하의 판도가 바뀝니다. 그것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중리제자열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공의 활약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자의 제자 그룹 속에는 귀족들도 있고 물론 평민 출신들도 있죠. 심지어 절름발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천민 출신인 중군 같은 사람도 있고 그랬지만 어쨌든 노나라의 귀족들이나 자공 같은 뛰어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한 사람들이 제자 그룹 중에 포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제후들 중 누구도 공자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자는 무시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좋은 소문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는 입장에서 굉장히 불리한 처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식인들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맺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www.artnstudy.com

공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판적 안목으로 맹자를 읽게 되면 맹자는 그 당시 제후들과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사람인데 제후들이 물어 본 질문에 대답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당시 제후들의 관심이라는 건 뻔해요. 부국강병. 어떻게 하면 자기 나라를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하고 또 군사력을 튼튼하게 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땅을 뺏어서 천하를 차지할 것인가. 이게 그들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늘 묻는 것은 뻔합니다. 제환진문지사(齊桓晉文之事). 제나라 환공과 진나라 문공 같은 패자가 되기 위한 질문을 맹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맹자가 대답하는 거는 그런 질문과 완전히 동떨어진 대답이에요. **인의의 정치, 왕도주의, 혁명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동문서답이죠. 물론 맹자의 장점은 아무리 패도에 관해서 군주가 묻고 법률에 대해서 묻고 그래도 끝까지 자기의 왕도주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맹자의 장점입니다. 『맹자』를 읽으면 또 그런 힘이 보여요. 어쨌든 맹자는 어떻게 보면 공자보다 더 당당하게 돌아다녔어요.

공자는 그래도 『열자』 같은 문헌에 보면 상가지구(喪家之狗)라고 그래 가지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집 잃은 개"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상가는 상을 당한 집안도 되고 또 집을 잃었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상갓집 개. 또는 집을 잃어버린 개. 둘 다 통하는 말인데 둘 다 근거가 있는 주석이 있습니다. 이런 처지로 공자를 표현한 문헌이 『열자』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얼마나 천하를 어려운 처지로 돌아다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진나라, 채나라 사이에 굶주려 가지고 제자들이 쓰러지고 하는 그런 고통도 당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앉은 자리가 따뜻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여기저기 돌아다닌 게 공자인데, 맹자는 『맹자』에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맹자 제자 편경이라는 제자가 맹자 보고 묻습니다. 선생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후거수십승(後車數十乘),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고, 종자수백인(從者數百人), 수행하는 제자들이 수백 명이에요. 공자는 열 몇 명의 제자들과 천하를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빠졌는데 맹자는 수레가 수십 대고 수백 명의제자들이 호종하면서 돌아다닌 겁니다. 당당하게. 제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밥 빌어먹는다고 그래요. 전식여제후라. 그래서 제자의 말이 선생님 뒤따르는 수레 수십 대고 또 수행하는 제자 수백 명,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제후들에게 또 밥은 꼬박꼬박 얻어먹고 다니니까, "선생님 너무 사치스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맹자가 순 임금은요 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받았는데도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로 사치스럽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맹자거든요. 제후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고요. 공자는 이를 테면 위나라 영공을 공자가 만났다, 그러면 위나라 영공이 공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날아가는 새를 쳐다보고 이래요. 그러면 공자는 떠납니다. 아 내 말에 이미이 군주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구나 하고 명일수행(明日遂行), 그 다음 날 마침내 떠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날, 밝아오는 날에 마침내, 행(行), 떠났다. 위나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맹자는 잘 떠나지도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고 곁에 붙어 가지고 왕도주의 하고 혁명론 하고 계속 괴롭혀요. 그게 맹자에요. 끝까지 동문서답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럴 수 있었던 게 맹잡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자보다 맹자는 더 행운아죠.

www.artnstudy.com

그런데 공맹이 그런 처지라면 장자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공맹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하의 군주들이 모셔 갑니다. 비록 등용을 해서 정책을 펼치게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치, 국가의 중대사를 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폼으로라도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야 그게 **일종의 문화정책** 아니겠어요. 우리가 요즘 힘의 정치, 미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으로 힘의 정치를 한다지만, 실제로 문화적인 포섭 없이 세계에 군림하기란 대단히 어렵죠. 그런 식의 장치를 그 당시 군주들이 취하는 게 맹자 같은 지식인들과의 교류거든요. 사실 밑지는 장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맹자』에 나오는 제나라 선왕(齊宣王)이나 또 양나라 혜왕(梁惠王) 같은 이런 인물들은 제왕열전이라는 것, 각 나라의 군주들의 개별적인 전기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이름도 안 나올 사람들입니다. 별 볼일 없는 군주들이에요. 나오면 제나라 환공이나 진나라 문공이나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군왕으로서 당나라 태종이나 한나라 무제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지, 제나라 선왕이나 양나라 혜왕은 거론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아닌데 천하에 저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동양사회에서는. 당 태종보다 더 유명합니다. 왜? 맹자하고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밑지는 장사가 아니죠. 삼척동자 시절부터 『맹자』를 읽거든요. 우리가 이제 **전통사회의 학문**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기본 고전은, 『장자』, 『노자』 포함해서요, **기본 고전은 다 기송(記誦 기억하여 외움)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송을 하지 않으면 안돼는 이유가 누구나 다 그 문헌을 기본적으로 보았다는 걸 전제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송을 하기 싫어도 일단 기송을 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문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서양 고전도 사실 마찬가집니다. 희랍 고전의 위치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요즘 들뢰즈니 라캉이니 이런 사람들도 결국 거기에 나오는 개념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인들이 그 책을 읽고 그 개념을 가지고 논하니까 그걸 갖다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문헌들을 기본적으로 섭렵하는데 그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천하에 알려지는 거죠.

▲ 공맹과 대조적인 장자의 불우함 - 세속의 명리와 거리를 둠

그러면 이제 장자인데요, 그 다음에. 장자는 사실 이런 대화 상대가 공자나 맹자처럼 다양하질 않습니다. 『장자』 외편에 보면 장자가 그 당시 군주들과 대화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 후대에 꾸며진 내용이고 장자 자신의 저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장자 자신의 저작으로 인정되는 것은 내편(內篇)이에요. 내편에 이제 오늘 저와 같이 볼 「소요유」편, 「제물론」편, 「양생주」편, 「인간세」편, 그리고 「덕충부」, 「대종사」, 「응제왕」, 이렇게 일곱 편입니다. 그 일곱 편이 장자가 직접 저술한 책으로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그 외편이나 잡편은 장자의 후학이나 심지어는 장자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의 견해까지도 동일한 주제니까 같이 묶을 수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편집할 때 꼭 주 저자의

www.artnstudy.com

견해와 똑같은 견해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비판적 견해를 진술한 것도 같이 편집에 포함시킬 수 있죠. 『장자』는 그런 문헌입니다. 그래서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쨌든 외편에 보면 장자가 초나라 왕의 초빙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사실 그거를 사실로 믿는 학자는 거의 없습니다. 초나라 왕이 장자 안 부르거든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길 하는 사람을 정치에 불러서 쓸 데가 없어요. 왜? 장자 하는 얘기가 나는 천하를 가지고 쓸 데가 없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뱁새가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지만 나뭇가지 하나면 족하고(不過一枝), 언서(偃鼠), 생쥐가 황하 물을 마시지만, 불과만복(不過滿腹)이라, 배 채우는데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러다 천하를 경영하게 맡긴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죠.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초나라 왕이 불렀다 그랬는데 장자가 복숫가에서 낚시질 하고 있다가 초나라 왕의 사신이 와요. 장자 「추수」 편에 나옵니다. 임금님께서 당신을 재상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가시지요, 하니까 장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듣자 하니 초나라의 신귀, 신묘한 거북이가 있다고 하더라. 그 거북이는 굉장히 큰데 결국 죽여서 그 거북 껍질을 갖고, 등딱지, 또는 배딱지를 갖고 점을 치는 도구로 쓰는 거거든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은 다음에 신귀로, 아주 신묘한 거북이로 모셔지기를 바라느냐, 자네 같으면 죽은 다음에 신묘한 거북이로 모셔지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지금 저 진흙탕 속에서 꼬리를 질질 끄는 자라 신세가 되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사신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사신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야 죽어서 신귀 되느니 살아서 진흙탕 속에서 질질 끄는 게 낫죠. 하니까 장자가 너 가봐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장자』 외편에 나오는 이야긴데 장자 후학들이 장자의 불우한 처지를 동정하기 위해서 하나의 위안거리를 만든 진통제 역할 정도라고 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 초나라 왕이 그런 식으로 보냈을 수가 없는 내용이 내편 전체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인물인데 세속의 명리에 얽매이는 것은 『장자』에서는 하급에 속해요.**

「소요유」 편에 나오는 얘깁니다. 명예를 얻어서 한 고을을 다스린다든지 또 한 나라에 불려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장자』에서는 최하층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은 사람이 송영자 같은 사람. 세속적인 명리와 명예욕에 기대지 않는 사람. 그것도 한계가 있는 인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열자가 나옵니다. 열자는 세속적인 영예를 떠나서 바람을 타고 돌아다니는 인물이에요. 장자는 그것도 바람에 의지하는 것이 있다. 기대는 것이 있다. 그것도 여전히 부자유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장자가 국가에 초빙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으리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 개인 신상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장자

www.artnstudy.com

그러면 장자는 어떻게 해서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것인가. 장자는 두 얼굴이 있거든요. 『장자』를 어떻게 읽느냐는 예를 들어 중국의 관봉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관봉이라는 학자 같은 경우는 장자를 무기력한 지식인의 대표로 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실을 변혁하기 위해서 장자가 아무 것도 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식의 비판이 가능하죠. 실제로 우리나라 실학자들에 대한 역사학계의 비판도 한때 그런 쪽이 있었습니다. 다산 정약용이고 연암 박지원이고 다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했다. 실제로 자기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만한 사회적 통로를 마련하지 못했지 않느냐. 다산이 조금 낫지만 수원성 축조하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의 입장에서 보면 장자는 굉장히 무기력한 지식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돌이켜 생각해보죠. 그 지식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장자는 『장자』라는 책을 썼죠. 맹자는 『맹자』를 썼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자신의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독백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독백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병아리 울음소리나 다를 게 없어요. 이것도 「제물론」에 나오는 말인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장자의 가장 친한 친구가 혜시(惠施)입니다. 『장자』에 보면 혜시라고 나올 때도 있고 혜자(惠子)라고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만 봐도 혜시라고 기록하고 있는 문헌은 장자의 시대와 상당히 근접해 있었을 것이고 혜자 라고 존칭을 붙인 것은 이미 한참 뒤에 쓰여졌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혜시는 장자의 절친한 친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등장을 합니다. 「소요유」편에서 시작해서 외편이 끝나는 「지북유」편에도 나오고 맨 마지막의 「천하」편에까지 혜시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장자에게 혜시라는 벗이 있었던 것만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을 하는데 그 외에 장자의 신상에 관한 것은 거의 도움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요. 어쨌든 우리가 진나라 이전 시기의 고대 철학사상가들의 전기를 살펴보려면 『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사기』 열전(列傳)에 장자가 나옵니다만 노장신한 열전. 노자하고 장자하고 신불해와 한비자 열전이 통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장자는 235자에 지나지 않아요. 장자 신상을 이해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글이죠.

맹자는 더 합니다. 맹자는 137자에요. 그런데 사마천의 맹자 137자는 명문입니다. 아주 굉장한 명문이에요. 비록 137자이긴 합니다만 맹자 사상을 거의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고 가장 긴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았는데 장자에 대해서는 사실 오리무중입니다. 장자의 신상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게 없어요. 이 235자를 처음 얘기한 학자는 일본 학자 복영광사(福永光司)

www.artnstudy.com

라고 후쿠나가 미쓰지란 학자가 있습니다. 역시 『장자』 번역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이걸 밝히는 이유는 이 학자가 사마천의 장자 전기를 하나하나 세어 봤나 봐요. 제가 그때부터 모든 문헌을 읽을 때 몇 글자인지 세어 보는 버릇이 생겼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정원일기』가 몇 자냐? 1억 7,000만 자다. 『왕조실록』이 몇 자냐? 4,000만 자다. 『사고전서』가 몇 자냐? 20억 자다. 이런 식으로요. 정확하진 않지만 다산 정약용의 저서는 400만 자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책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 같은 걸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데 그런 걸 제가 이걸 통해서 봤기 때문에 굳이 밝힙니다. 그리고 또 『장자』 번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자이기도 하고요.

–

◆ 2교시 장자와 맹자

▲ 동시대의 장자와 맹자

그런데 불행히도 이 235자에는 신상을 알려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자는 맹자와 동시대라고는 하지만 맹자가 장자 이야기 안 하고 장자가 맹자 이야길 안 해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하기 가장 좋아하는 인간들입니다. 맹자든 장자든. 못 참아요. 자기와 다른 견해가 있으면 못 참습니다. 맹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정도가 심한 게, 예를 들면 그 당시 인간 본성에 관한 논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주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혼란한 시대의 인간 본성은 악하다는 주장이 먼저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혼란스럽고 범죄가 만연하고 날이면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판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하죠. 맹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악하다는 주장이 당연히 먼저 나옵니다. 인간은 그냥 놔두면 저렇게 싸우고 엉망진창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가하고 억압을 하고 또 처벌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또 성공하고요. 단기간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에 대한 것, 또 어떤 사람은 타협적으로 인간의 본성은 선성과 악성이 혼재돼 있다. 그래서 선성을 닦으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성을 닦으면 악한 사람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하고 어떤 사람은 악하다. 어떻게 보면 인종 차별적 발언 같은 것도 그 당시 나옵니다. 또 상중하의 등급이 있다. 또 선이나 악으로 말할 수 없다. 동쪽으로 물을 터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물을 터주면 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구분할 수 없다. 이런 모든 주장을 다 꼬치꼬치 비판하는 게 맹자입니다. 그런데 장자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www.artnstudy.com

장자도 또 그 당시 「천하」편에 보면 나와요. 혜시, 공손용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 말 잘하는 논객들 다 끌어 모아 놓고 비판하는 게 장자거든요. 말재주 뛰어난 벗을 두었던 장자답게 그걸 다 비판하는데 맹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말이 없고 다만 **추로지사(鄒魯之士)**란 말을 해요. 추(鄒)는 맹자의 고향입니다. 노(魯)는 말할 것도 없이 공자의 고향이죠. 추로지사는 공맹, 공자와 맹자를 추종하는 지식인들을 추로지사라고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추로지사란 말은 공자와 맹자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장자』에 맹자가 언급이 되기는 한 번 했습니다. 어쨌든 맹자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면서 얘기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상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오히려 동시대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 당시는 요즘 우리처럼 누가 발언을 하면 그게 그날 바로 알려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동시대 활동했을 때 영역이 다르면 만나질 않다가 나중에 문헌이 알려지면 그때 비로소 비판하고 재비판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동시대라고 하는 게 서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 동시대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 장자와 절친한 벗 혜시에 대하여

어쨌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동시대라고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마천의 『사기』에 의존하기 보다는 **『장자』라는 문헌 자체에 의존해서 장자의 신상을 파악해야** 되겠죠. 해서 그걸 기준으로 보면 혜시(惠施)야 말로 장자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은 절친한 벗이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혜시와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장자가 혜시를 대하는 태도, 혜시가 장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절친한 벗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골계, 유머가 풍부한 그런 대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유머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문데, 있더라고요. 제가 『장자』를 번역하면서 수많은 주석가들을 만나 봤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경우도 있어요. 아니 이분들이 『맹자』도 안 읽고 『장자』를 번역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때로는 정말 대단한 학자다. 선생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 학자들이 예를 들면 왕숙민(王叔岷)이라는 학자도 있고, 또 일본의 이께다(池田)란 학자도 있고, 또 이제 곽말약(郭沫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곽말약이라는 학자에요. 대단해요. 장자 주석을 직접 내지는 않고 여기저기 단편적으로 장자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야말로 칼 같이 아무도 보지 못한 점을 끄집어내더라고요. 장자의 유머를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학자였습니다. 그런 대화들이 장자와 혜시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야말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혜시**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위(魏)나라 재상**이었어요. 춘추전국 시대 위나라 하면 강대국입니다. 위나라는 진나라와 붙어 있어서

www.artnstudy.com

남쪽에는 초나라와 붙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강대국 진나라와 붙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팁니다. 다른 나라가 망할 때까지, 강대국 진나라와 대등하다고는 못해도 어쨌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위나라입니다. 강대국 위나라도 결국에는 진나라에 통합되는 논리로 가요. 천하가 통일의 논리로 갑니다. 통일의 논리로 갈 때는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게 동일성이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한다, 이렇게 얘기할 땐 같은 민족이라는 걸 내세우고 통일하잖아요. 우리하고 달라, 이러면 통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단 이 당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는 논리에 들어가면 진나라나 위나라나 같다, 이 논리로 가겠죠. 그러면 진나라에 위나라가 먹히는 겁니다. 거기에 반대한 게 혜십니다. 우리 다르다. **백마비마(白馬非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백마비마론도 혜시나 공손용 같은 논리학자들이 주장했는데 논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논리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 지향이 중요한 건데 예를 들면 백마(白馬)와 말(馬). 백마는 말이 아니다는 번역은 틀린 번역입니다. 백마가 말이 아니긴요? 당연히 말이죠. 백마가 말이 아니라는 명제는 성립이 안돼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백마비마는 백마와 말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범주가 다르잖아요? 흰 말이라고 했을 때와 그냥 말이라고 할 때는 범주가 다르잖아요. 말이라고 하면 이렇게 다 포괄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흰말이다 혹은 흑마다, 검은 말이다, 이런 식으로 나누면 그 **차이를 드러내는** 거죠. 혜시는 그런 입장에 섰던 사람입니다.

결국 강대국 진나라가 위나라를 통합하는 그런 시대적 추세.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필연적인 추세라고 법가 학자들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니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혜시거든요. 그래서 위나라에서 잘립니다. 그 당시 현실적인 추세에 부합하지 못했던 혜시가 결국엔 위나라에서 제거당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런 사람과 절친한 벗인데, 이런 혜시 같은 사람도 장자를 두고 뭐라 그러냐 하면 좀 있다 읽어 보면 나옵니다. **장자를 두고 대이무용(大而無用)**이라고 그래요. 자네의 주장은 대(大), 크기만 하지, 무용(無用), 쓸모가 없다. 매번 구만 리 장천을 날아올라가는 붕새 얘기나 하고, 팔천 년, 팔천 년을 가을로 삼아서 삼백이십만 년 사는 나무 얘기나 하고. 거창하긴 한데 쓸모라곤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중소동거야(衆所同去也)라. 모든 사람들이 동거(同去), 다 떠나가 버린다. 아무도 자네 이야길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다 떠나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혜십니다.

▲ 장자의 우언

사실은 그 당시 시대의 추세에 영합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력 상층부에서 제거당한 혜시조차도 장자를 대이무용이라고 할 정도였으니 장자의 황당한 이야기는 그 당시 군주들과는 사실 어울리지가 않죠. 아무리 얘기해도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혜시가 그렇게 얘기한 건 정확한거에요. 혜시가 보기에는 장자가 이렇게 떠들어 대는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혜시만 들어주고. 그런데 장자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죠. 어떤 방법으로? 장자는 우언

www.artnstudy.com

(寓言)을 택한 거거든요. 우언이라고 하니까 좀 생경한 언어처럼 들립니다만 우화(寓話)라고 보시면 되죠. 『장자』에 「우언」 편이 있죠. 우언이야기하고 중언이야기하고 치언이야기 하는데, 우언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장자의 뜻은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언을 하는 이유는 붙인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패러디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라든지 사람들이 이미 존중하고 있는, 만인이 다 공감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을 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에는 공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세상 사람들이 공자 말이라면 깜빡 죽잖아요. 사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막 해요. 나쁜 얘기할 때는 주로 공자를 끌어대는 게 지금 우리나라 분위긴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자식 교육은 많이 때려야 한다고 공자가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공자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나쁜 얘기할 때는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자가 어쨌든 간에 우리사회에서 공자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거기서 알 수 있죠. 그런데 장자도 마찬가지의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식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 이거에요. 우리 애가 나를 닮아서 머린 좋은데 기초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무도 안 믿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아버지의 아들을 칭찬하면 사람들이 믿죠. 그런 방식의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이를테면 공자나 맹자는 간언(諫言 웃어른이나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하는 말)이죠. 간언인데 이건 구체적인 형식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가. 상대가 묻는데 예를 들면 『맹자』같은 문헌 첫 번째 딱 펼치면 양나라 혜왕을 맹자가 만납니다. 맹자견양혜왕(孟子見梁惠王), 맹자가 양나라 혜왕을 만나요. 왕왈(王曰), 양나라 혜왕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이롭게 해주시겠습니까, 묻거든요. 딱.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맹자는 이롭게 하는 방법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나가면 물론 맹자 스타일은 물론 아니죠. 어째서 왕은 이익을 말하십니까? 이렇게 치고 나가면 됩니다. 상대의 주장에 동조하던가아니면 상대의 주장을 비판 하던가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상대가 어젠다(agenda)를 던져 주는 거죠. 물어주니까요. 그런데 장자는 상대가 물어보질 않으니까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요. 자기가 직접 이야기를 만들려면 기존의 이야기와 똑같은 방식이어서는 안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정책 고위 입안자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랑 일반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요즘 신문을 보고 논술을 공부 한다 그래가지고 학생들 글이 이상해졌어요. 학생들 논술문을 보는데 강력하게 촉구한다, 학생들이 논술문에서 백날 촉구해 봐야 누가 듣겠어요. 아무 힘이 없죠. 아무리 옳고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를 해도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거는 교육 정책 입안자가 하든가 이래야 되는 거지 학생이 논술문에 이렇게 쓴다 해서 교수가 보고 대단히 안목이 높다, 이러진 않거든요. 사실 그런 표현이 들어가서는 안 될 텐데 요즘 글쓰기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 같아요.

www.artnstudy.com

어쨌든 장자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새로운 방식으로 나가면서 우화라는 장르를 스스로 개척한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시공간을 창조하는데 그게 지극히 아름답고 그냥 지극히 아름답기만 하면 좋겠는데 지극히 어려워요. 지극히 어려운 게 문제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오천 년래 최고의 문장이다 그러면 연암 박지원을 들거든요. 이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서거정이나 이규보나 더 올라가는 시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저도 누가 글 잘 쓰고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 글 쓰는데 나오면 너 박지원 뺨치겠다, 이런 식으로 칭찬을 하는데요, 그 연암 박지원의 문장도 장자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들 장자가 이제 음악 이야길 한다 이거에요. 음악 이야기를 할 때 피리를 갖고 부는 건 사람의 음악이다. 「제물론」에 나오는 이야깁니다. 사람의 음악이고 인뢰(人籟), 이건 다음 시간에 할 주제입니다만, 사람이 만든 피리. 사람의 음악이고요. 이건 대나무에 비죽(比竹), 대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부는 걸 인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지뢰(地籟)가 있습니다. 지뢰는 바람이 불면 커다란 나무에 있는 수많은 구멍에서 구멍의 크기라든지 모양에 따라서 각기 다른 소리가 나죠. 그게 지뢉니다. 땅의 음악이죠. 그 다음이 천뢰(天籟), 하늘의 음악인데, 하늘의 음악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본래 소리가 큰 소리는 안 들리죠. 큰 소리는 시끄럽다고 느끼질 않는데 잔소리는 시끄럽죠. 작은 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모기 소리는 앵하고 너무나 치열하게 들리는데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리잖아요. 이렇게 큰 게 돌아가는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안 들리게 주파수가. 옛날 인류는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들리니까 안 들리는 식으로 직업병이 생겨서 지금은 안 들리는 모양인데 어떤 분은 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듣는다고. 웅 하는 소리라는데 어쨌든 천뢰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장자가 정말 안 들린다고 한 건지도 불확실해요.

▲ 정치적 혼란기의 하층 지식인 장자

그것도 장자의 처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장자는 사마천의 『사기』에 의하면 몽칠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몽땅의 칠원이라는 동산의 관리, 동산지기입니다. 그런데 몽이라는 게 위나라 땅도 됐다가. 장자 출생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송나라 칠원의 대부였다, 이게 사마천의 『사기』의 주장이고요, 한유 같은 문장가는 장자가 장자이기황당지사명어초(莊子以其荒唐之辭鳴於楚)라. 장자는 그 황당한 이야기로. 황당(荒唐)이 요즘 우리의 황당이 아닙니다. 그냥 미친 소리,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커다란 이야깁니다. 쓸모는 없지만, 인간의 정신세계를 넓혀주는 그런 이야기인데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그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 황당한 이야기로 명어초(鳴於楚)라. 초나라에서 울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장자』에서 중요한 게 또 명(鳴)입니다. 우는 거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는데 그걸 문장으로 표현을 한 거죠. 초나라 출신이라고 그러고 사마천은 송나라 출신이라고 하고 또 위나라 출신으로 봐요. 전자방의 제자다. 전자방은 위나라에 있

www.artnstudy.com

었다. 전자방은 공자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위나라, 초나라, 송나라, 이런 식으로 막 견해가 엇갈리는데 왜 그런 견해가 나오게 되냐면 몽이라는 곳이 위나라 땅도 됐다, 초나라 땅도 됐다,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자가 송나라 몽에 있었다. 그런데 초나라가 쳐들어 와서 몽이 초나라 땅아 돼버리면 초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초나라 군대가 들어올 때 장자가 초나라 군대 만세, 이래 버리면 초나라 군대가 진주하고 있을 때에는 잘 살게 되겠죠. 초나라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위나라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옛날에 초나라 만세 했지. 이렇게 되면 위험하거든요. 또 위나라 만세 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송나라가 들어와서 차지하면 너 옛날에 위나라한테 협력했지.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닙니다만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정치체제 속에서 우리가 자라왔으니까 우리도 피해잡니다. 예를 들어서 동막골 같은 것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머로 풀어내니까 그게 참 재밌는데, 실제로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고통스런 일이었을 겁니다.

『장자』 속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아요. **진군(眞君)**이 참된 군주, 뭐 이런 뜻으로 나오는데 참된 군주가 있는가? 진군이라고 할 때 이 군은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제물론」에 나오는 표현인데 **몸을 다스리는 통치자**에요. 사지백해구규(四肢百骸九竅). 사지는 팔다리를 사지라고 합니다. 구규는 인간의 몸에 뚫린 아홉 개의 구멍을 이야기하고 백해는 백 개의 뼈마디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게 몸의 주인이냐 이거에요. 예를 들어 맹자는 군주가 있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심(心)입니다. 대체(大體)와 소체(小體)가 있다. 대체는 사람의 몸 중에서 대체는 심이고 소체는 팔다리, 이목구비, 사지, 이런 거다. 소체는 이목구비의 욕망. 아름다운 걸 보고 싶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싶고, 사지는 편안하길 바라죠. 그런 게 소체고, 소체를 따르게 되면 소인이 된다고 그래요. 먹고 싶고 자고 싶고 오직 그것만 따질 거 아니에요. 대체는 심이다 이거에요. 먹어도 되는가. 이거 함부로 먹어도 되는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 게 정당한가. 그걸 따지는 게 심이라 이거죠. 대체를 따르면 군자고 소체를 따르면 소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맹자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장자는 그렇게 바로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에요. 순자도 인제 맹자와는 인간관에서 선악을 달리하지만 어쨌든 유가에요. 순자는 천군(天君)이란 말을 써요. 순자가 천군이란 말을 쓸 때 천군은 뭐냐? 심이에요. 맹자와 마찬가지로 심입니다. 천군의 명령을 따르는 게 아주 편안한 삶입니다, 순자에게는. 그런데 장자는 이 진군이란 말을 쓰는데 이게 확실히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진군존언(眞君存焉)이라. 진군이 있다. 인간의 백해구규사지, 팔다리 온갖 뼈마디를 다스리는 참된 군주가 존언(存焉),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참다운 군주가 있는

www.artnstudy.com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의문으로 풀이해도 전혀 딴지를 걸 수 없는 게 장잡니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고 저렇게 해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들어왔다 이거에요. 초나라 군대 만세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것입니다. 이게 좀 있으면 바뀔지 모르는데 거기서 만세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장자야 말로 그 당시 하층 지식인으로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 같이 불우했다고는 하지만 공맹의 불우는 알아주는 사람이 있는 가운데 불행이고 장자의 불운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그야말로 날마다 투쟁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죠.

그런데 이 장자를 대체로 어떤 방식으로 읽어 왔냐면…. 최근에는 많이 극복되었어요.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의 장자 독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를 통해서 자유를 추구한다. 그런데 그때 자유라고 하는 게 뭐냐. 현실의 각종 왜곡된 모습을 은폐하고 장자 대붕의 세계. 이런 데서 노니는 소요의 즐거움. 이런 식으로 얘길 하다보니까 현실도피적인 그런 방식으로 갔죠. 장자라는 인물의 그런 고통스러운 삶의 투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그런 독법이라고 봅니다, 저는요. 그런데 그런 독법을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도 장자를 읽는 하나의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산을 오를 때 그 사람이 꼭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산을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산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장자』 속에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무소유의 삶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때 그 무소유의 삶을 이야기하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무소유가 가장 유행했던 때는 제 기억에 80년대였거든요. 80년대는 어떤 사회였냐 하면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진 자가 무소유를 이야기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산더미 같은 욕망 젤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무소유가 좋은 것이야, 이렇게 얘길 하니까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것도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그게 황당한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장자도 그 두 가지 면모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하면서 앞으로 『장자』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자에 대한 소개가 없을 수 없고, 사실 저는 다짜고짜 읽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요. 큰 그림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자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변 이야기를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잠시 쉬었다가 『장자』의 내용을 다짜고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ww.artnstudy.com